

‘싱어게인2’ 무명가수 곡절(曲折), 유명 곡절(曲節)되다

톱6 온라인 간담회...6명 모두 MBTI 내향형 I
김기태 “허스키 목소리” 콤플렉스, 자신감 생겨”

“허스키한 목소리가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의 색깔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단정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싱어게인2’를 통해 섬세한 곡을 불렀고 그 노래를 좋아해주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콤플렉스가 없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이전보다 자신감이 좀 더 생겼습니다.”

종합편성채널 JTBC ‘싱어게인-무명가수전’ 시즌2에서 우승한 김기태. 그는 ‘허스키 보이시’로 짙은 호소력을 뽐내며 경연 내내 호평을 들었다. 하지만 그 귀한 목소리가 사실 그의 콤플렉스였다. ‘싱어게인2’는 그 콤플렉스를 긍정하게 해주는 발판이 됐다.

김기태는 15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싱어게인2’ 톱6 간담회에서 “저 같은 목소리도 섬세하게 노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이나 까닭을 뜻하는 곡절(曲折)이 없는 가수가 어디 있겠느냐는, 오랜 기간 무명 생활을 겪어야 했던 ‘싱어게인’ 톱6만큼 사연 많은 곡절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허스키 보이시’ 김기태를 비롯 ‘독보적 음색’ 김소연, ‘가정식 로커’ 윤성, ‘보컬 타짜’ 박현규, ‘음색 깡패’ 이주혁, ‘도심 속의 히피’ 신유미 등 ‘싱어게인2’ 톱6는 이제 유명 곡절(曲折)을 가진 명실상부 유명가수가 됐다.

그 중에서도 김소연이 가장 드라마틱한 성장 사사를 썼다. 무대를 이겨서 다음 라운드

에 진출한 적이 없는 그녀다. 추가합격과 패자부활전을 거치며 우여곡절 끝에 2위를 차지했다. 특히 결승전 문턱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했을 때 답답히 부른 모던록 밴드 ‘디어클라우드’의 ‘일요일은세’는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장면이다.

마음을 비우고 임한 것이 도움이 됐다는 김소연은 “스스로도 성장해가는 것이 보기 좋았다”라고 긍정했다. 그녀는 ‘싱어게인2’에서 심사위원으로 나선 YB의 윤도현과 협업도 예고했다.

톱6는 묘하게도 성격유형검사(MBTI)에서 외향형(E)과 내향형(I)을 따질 때 여섯 명 전부 I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모두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끼를 드러내는 천성 가수들이다.

‘싱어게인2’ 3위를 차지한 하드록 밴드 ‘아프리카’의 보컬 윤성이 대표적이다. 평소 능수능란한 입담을 자랑하는 그녀인데, 압도적이지만 깔끔한 고음을 내는 무대 위에서 존재감이 더 또렷하다. 재즈보컬에서 하드록으로 넘어온 윤성은 사실 어릴 땐 성악을 했다. 퓨전 국악도 해봤던 그녀다.

윤성은 “이렇게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팬층이 음악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금의 ‘가정식 로커’가 됐다”고 돌아봤다. “로커 입에도 거친 목소리가 아닌 맑은 목소리로 고음을 하는 부분이, 록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았나 해요. 재즈에 몸 담았던 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원동력이죠.” ‘싱어게인2’ 4위인 박현규는 감성 보컬그룹 ‘브로맨스’ 멤버이기도 하다. 그는 브로맨스에 대해 “음악으로 이뤄진 가족이자 제 원동력”이라고 했다.

“저는 저에 대한 의심이 많았어요. 제가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요. 팀으로 활동했는데도 잘 안 됐는데 과연 혼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싱어게인2’ 무대에서 혼자 있는데 다른 멤버 세 명이 함께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울러 제가 누군인지 고민한 적이 없었는데 ‘가수 박현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됐습니다. 팀 활동도 좋지만 단독 콘서트를 열고 싶어요.”

‘싱어게인2’ 5위인 밴드 ‘기프트’의 보컬인 이주혁은 ‘싱어게인2’에 앞서 포크 오디션 ‘포커스’, 밴드 오디션 ‘슈퍼밴드’ 그리고 가장 경연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에도 출연했다. 독특한 음색을 보유한 데다 뛰어난 실력까지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주혁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가수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었잖아요. 그런데 TV방송 프로그램엔 좋은 장비와 화려한 LED가 있는 멋진 무대로 ‘좋은 라이브 클럽’을 만들 기회가 있죠. 그렇게 좋은 무대를 하나 하나 남기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싱어게인2’를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좋았고, 그 분들을 보면서 제 음악적인 스펙트럼도 넓어져서 좋았어요.”

‘싱어게인2’ 6위인 신유미는 블랙핑크 등 아이돌그룹 보컬 선생님, 예소의 유닛 엑소-첵백시와 러블리즈의 작곡가로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인이었다. 그런데 이번 ‘싱어게인2’에서 가장도 가장이지만 정형화되지 않은 편곡 실력을 뽐내며 ‘프로듀서형 아티스트’라는 사실도 증명했다. 이장희의 ‘그건 너’, 서태지의 ‘울트라맨이야’,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이 대표적인 보기도.

신유미는 “리듬 안에서 메시지를 어떻게 담아서 해석할 것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번 ‘싱어게인2’에서도 그런 모습을 담고자 노력했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누가 장르다’ 같은 말이에요. ‘신유미가 장르’라는 걸 보여드리려는 것뿐만 아니라 신유미의 유니버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유미는 팬카페 ‘유미버스’가 생겼다고도 귀띔했다. 팬카페 이름은 신유미와 유니버스를 합친 말이다. 팬덤 이름은 ‘음표로 지었다. 그녀는 팬카페 이름엔 ‘신유미’라는 버스를 음표들이 함께 타고 음악여행을 떠나자’는 의미도 있다고 웃었다.

또 신유미는 “그건 너” 무대는 ‘대중에게 좀 더 다가가는 무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

고 부른 노래”라면서 “앞으로도 제가 혼자서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무대를 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싱어게인2’는 분명 경연 프로그램이지만, 고난을 다반사(茶飯事)처럼 겪은 이들이 다수 모인 만큼 경쟁보다는 연대가 눈에 띄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닌 살아남기 위한 경연이었던 것도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한 몫 했다. 신유미가 “우리끼리 전우애가 생겼다”고 말할 정도다.

그런데 ‘싱어게인2’ 후속 프로그램으로 4월 방송 예정인 JTBC 새 예능프로그램 ‘유명가수전-배틀싱어게인’에서 오히려 이들은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경쟁보다는 예능에 방점이 찍힌 배틀이라 모두 마음이 편한 상태로 임하고 있다. 박현규는 “소연 씨가 거역 먹으려고 하고, 기태 씨가 죽일 듯이 노력하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한편, ‘싱어게인2’ 톱6를 포함한 톱10은 오는 4월9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도 돈다.

이정재, 美 남우주연상 ‘올킬’에 외신 집중조명



배우 이정재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으로 새로운 기록을 연일 세우고 있다.

15일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에 따르면, 이정재가 최근 미국 주요 드라마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휩쓰는 것과 관련 외신들이 주목

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 ABC뉴스, 인디와이어, 할리우드 리포터 등 미국 현지 매체들이 이정재의 수상 소식을 앞다퉈 조망했다.

이정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진행된 ‘제27회 미국 크리티컬스 초이스 어워즈(Critics Choice Awards)’에서 드라마 시리즈 최우수 남자 배우상을 거머쥐었다. 아시아 국적 배우 중 첫 수상이다.

또 이정재는 ‘크리티컬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미국배우조합상(SAG),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 등에서도 아시아 배우 최초로 남자 배우상을 받았다.

이정재는 ‘오징어 게임’에서 주인공 성기훈 역을 맡아 인간미 넘치는 매력을 세계적으로 공인 받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최대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에이전시 CAA와 계약을 체결했다.

배우 뿐 아니라, 프로듀서, 연출로도 글로벌 활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우효광, 불륜설 딛고 ‘활동재개’

추자현과 나란히 복귀

탤런트 추자현(43) 남편 위사오광(우효광·41)이 중국 드라마로 복귀한다.

우효광 주연 ‘애병회영(愛拼會贏)’은 15일부터 중국 CCTV를 통해 방송한다. 2019년 촬영을 마쳤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년 여 만에 전파를 탄다. 중국 개혁개방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이다. 평범한 중국인이 중화민족 정신을 계승해 개혁개방 물결 속에서 살아남는 이야기를 그린다. 우효광은 창업해 집안을 일으키는 장남 ‘가오하이성’(고해성)을 연기한다.

우효광은 이날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애병회영 포스터를 올렸다. “오늘 밤 CCTV 황금 시간대에 방송한다. 아이치이, 유유, 텐센트에서도 동시 방영한다”며 “고해성이 찾아온다. 투쟁하는 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홍보했다.

추자현과 우효광은 2017년 결혼했으며, 다음 해 아들 바다를 얻었다. 지난해 7월 불륜설에 휩싸였다. 우효광이 한 여성을 무릎 위에 앉



히고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 중국 매체에 포착됐다.

당시 추자현은 “나 또한 잘 아는 지인이었음에도 충분히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행동이었다”며 “경솔한 행동을 크게 질책했다. 효광 씨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 심리를 꺼져 죄송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7개월 여 만인 지난달 1일 근황을 공개했다. 각각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위너 강승윤 “솔로 신곡 뮤비, 홀로 아파하는 감정 담아”



위너 강승윤의 솔로 신곡 ‘본 투 러브 유’

뮤비, 한 편의 짧은 ‘이별 드라마’

(BORN TO LOVE YOU) 뮤직비디오 메이킹 필름이 15일 공개됐다.

뮤직비디오는 한 편의 짧은 이별 드라마를 떠올리게 한다. 담백하면서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에 호소력 짙은 강승윤의 목소리가 더해져 애절한 감성을 배가했다.

강승윤은 팬들이 궁금해 하는 뮤직비디오

속 숨겨진 메타포를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그는 “후회, 그리움 등 홀로 남아 아파하는 감정을 계속 보여주고 그 사이사이에 좋았던 추억과 내가 모질게 대했던 회상 장면들이 나온다. 그때 제 몸에 새로운 상처가 생겨나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승윤의 솔로 신곡 ‘본 투 러브 유’는 음악팬들의 호평 속 지난 14일 발매 첫 날 아이튠즈 송 차트 9개국 1위에 올랐으며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톱 10에 안착했다.

이효리 ‘마마무 다큐’에 깜짝 등장...‘회사’와 의리 과시

이효리가 마마무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환불원정대’로 인연을 맺은 회사와의 의리를 과시한다.

마마무다큐멘터리 ‘마마무_웨이 아 위 나우(MMM_Where are we now)’에 깜짝 등장해 ‘동 큰’ 지원사격에 나선다.

15일 웨이브 오리지널에 따르면, 25일 오전 11시 독점 공개되는 ‘마마무_웨이 아 위 나우(MMM_Where are we now)’에 이효리가 깜짝 등장한다.

이 프로그램은 마마무의 데뷔 과정과 최종상에 서기까지 치열했던 7년의 시간을 담은 4부작(120분) 다큐멘터리다.

멤버 회사와 그룹 ‘환불원정대’로 함께 활동한 이효리는 첫 회에서 마마무와 ‘포장마차 회동’에 나서며 속 깊은 이야기들을 공유한다. 1세대 걸그룹 핑클 출신으로서 겪었던 고층과 당시 직면했던 고민을 솔직하게 꺼내며, 아낌없는 조언을 건넨다.

이효리는 가수 백지영과 김이나 등 특급 게스트들과 함께 ‘인터뷰이’로도 나선다. 이효리는 마마무가 쌓아온 독보적인

웨이브 오리지널, 오는 25일 오전 11시 독점 공개



행보와 네 멤버의 인간적인 성품을 가까이서 지켜본 소감을 전하는가 하면, 7년차 정크스를 이겨낸 마마무의 새로운 시작에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마마무의 다큐멘터리를 오리지널로 공개하는 웨이브 측은 “Where are we now”라

는 부제처럼, 현재 마마무가 겪고 있는 방향성과 멤버들의 고민 등을 솔직하게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대선배’ 이효리와 의회동기 관련 이들에게 어떤 나비효과를 미치게 될지, 이들의 만남과 그 후의 이야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박보람, 4년 만에 자작곡 ‘셀프 리메이크’

가수 박보람이 자작곡을 셀프 리메이크한다고 소속사 제나두엔테엔터테인먼트가 15일 밝혔다.

최근 제나두엔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박보람은 첫 활동으로 ‘애쓰지마요

(2022)’를 22일 발매한다.

‘애쓰지마요’는 2018년에 발매된 곡으로 박보람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 소속사는 “박보람이 4년 만에 다시 부르는 곡으로 20대 후반 감성을 담았다”고 언급했다.

